



## 중국—에너지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정부의 대응책

### 1. 전력생산량: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금년 한해에 중국 소비자들은 90만 대의 자동차를 구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들은 하루에 8,000호의 비율로 주거를 위한 아파트먼트를 매입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는 전기기구와 난방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된다. 많은 기업가들이 조명과 열을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 및 국내 회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력공급에 의존하는 수천 개의 공장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자동차, 전기기구 그리고 공장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며, 이들 에너지의 대부분은 원유와 가스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생산품인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이들 품목의 소비가 적었기 때문에 석유의 순 수출국이 될 수 있었다. 오늘날 중국은 원유, 천연가스 및 전력을 갈구(渴求)하고 있으며, 전력생산량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소비는 차후

10년간에 걸쳐서 연 4%의 신장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20년간에 걸친 중국의 에너지수요 성장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라고 중국 엑손모빌의 탄 회장은 말하고 있다.

### 2. 미국의 점증하는 세계적인 영향을 우려

이와 같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수요는 외국 석유회사들에게는 좋은 뉴스인 반면에 중국 정부당국에게는 큰 골칫거리인 것이다. 2002년에 중국의 석유 순 수입량은 70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1996년 수입물량의 다섯 배에 이르는 것이다. 만일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0년에는 중국 에너지수요의 절반이 외국석유에 의해서 충당될 전망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베이징당국도 세계석유시장의 처분대로 되어 가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있다. 석유가격의 상승은 국가재정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관세장벽과 같이 경제에 타격을 가하게 된다. 이

와 동시에 베이징당국은 특히 페르시아 만으로부터 중국으로 수송되는 석유의 대부분이 통과하게 되는 말라카 해협에 대한 군사적인 초크홀드(봉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새롭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증가하는 국제적인 불안정 속에서 중국정부는 에너지공급 확보와 많은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일관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베이징 당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정책수립자들은 파이프라인 건설, 국내 및 국외에서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의 활성화와 국내의 비효율적인 발전소의 오버홀에 대하여 10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이징 당국은 처음으로 수입 석유량의 20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약 30억 달러가 소요되는 전략적인 석유 저장설비 건설에 대하여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주룽지 수상은 에너지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확대—보조금의 폐지, 가격의 자율화—와 함께 정상급의 석유회사들이 그들의 생산

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더 시장 기능적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 생산 증가를 촉진시키는 배후의 핵심요소는 중국의 도시들을 오염시키는 값싸고 풍부한 석탄을 추방해야 하는 필요성을 일깨우는 데 있다.

### 3. WTO 가입과 중국으로 물러오는 외국자본

베이징당국이 동시에 모든 것—국내 생산을 증가시키고, 외국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천연가스 사용에 의한 연료의 다양화 촉진 그리고 에너지가격의 규제완화 확대—을 성취하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다. 소비자들은 이미 휘발유, 난방비와 전기에 대하여 국제가격에 근접한 값을 지불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 많이 지불하게 될지도 모른다. 무거운 압력을 받고 있는 공장들과 발전소들은 또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동시에 베이징당국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거대한 프로젝트들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규제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들의 에너지 부문 전체의 구조를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에너지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나라는 엄청난 액수의 저축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세계은행의 에너지 전문가 누레딘 베라씨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큰 자본가들이 중국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또는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더욱이 중국은 탐사로부터 석유 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대하여 더 많은 외국의 참여를 환영하면서 에너지부문을 개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이 국내석유회사들의 주식취득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엑손모빌, 브리티시 페트롤륨(BP) 그리고 로열 더치/셸 그룹이 국내 정상급 석유회사—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 중국석유 천연가스유한공사(PetroChina) 및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Sinopec)—들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셸과 BP는 남부중국에서 수백 개의 주유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 4. 240억배럴의 원유 부족량

외국 석유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방어책으로 베이징당국이 선호하는 방법은 국내 석유생산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240억 배럴의 원유를 땅 아래에 깔고 있다—이것은 현재 수요로 20년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현재 기설 유정(油井)이 고갈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정부는 이제 3개의 가장 큰 석유회사들로 하여금 해외에서 새 유정을 발견하도록





추구하고 있다. 유망한 한 지점은 보하이 베이(만)로 중국의 북동부 해안에서 떨어진 곳이다. 앞으로 CNOOC는 아홉 개소의 보하이 베이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중국의 역사적인 다징 유전—이미 30년 이상 일일 1백만 배럴의 고품질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과 필적(匹敵)할 것으로 비유되는 한 유전에서 생산을 개시하였다.

중국은 또한 해외로부터의 석유공급을 확보하도록 석유회사들을 독려하고 있다. PetroChina의 모회사인 중국석유공사는 수단, 페루, 버마 및 카자흐스탄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PetroChina는 2001년 10월에 해외개발 사업단을 설치하였으며, 캐나다와 동남아시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1년 11월에 CNOOC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노스웨스트 사주(沙洲) 앞 바다의 천연가스전 공동개발에 대한 예비 협정에 서명하였다. 여기에서 생산된 가스는 BP 그룹과 함께 CNOOC가 건설하고 있는 광둥의 액체천연가스(LNG) 터미널에 공급하게 된다.

## 5.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8조 입방미터

베이징당국은 LNG를 보다 청결한 연료로 전환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주

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가스의 사용비율이 현재의 2%에서 2010년에는 에너지사용의 6%로 늘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확실히 충분한 가스—8조 입방미터의 확인된 매장량—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스는 신장의 먼 서부지역 지하와 또한 내몽고 지하에 매장되어 있다. 이것은 가스를 중국의 번창하고 있는 남부 및 해안 도시까지 줄곧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수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10년간에 걸쳐서 수천km의 파이프라인 포설을 계획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50억 달러의 동서 관로(管路)로서 이것은 신장에서 상하이까지 4,000km에 이르는 구간이다. 셸과 러시아의 가스프롬의 두 회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경합을 벌이고 있다. “우리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셸의 동북아시아 사업단의 회장인 탄 액 키아씨는 말한다. “이것은 첫번째이며,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부문 현대화의 강력한 추진은 필수적인 반면에 재정적인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다. 그들의 해외 유전발견에 대한 열성으로 중국회사들은 굴착권에 대하여 현행 가격의 4배까지 가격을 올려 제시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의 베라씨는 말한다. 따라서

그들이 정유설비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돈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LNG 사용을 밀어붙이는 것도 또한 반대의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천연가스는 석탄가격의 두 배이며, 어떤 사람들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중국의 회사들 사이에서 이것에 대한 시장을 베이징당국이 찾아낼 수 있을지 의아해하고 있다. 아직도 PetroChina의 후양 양 사장은 정부가 석탄 사용을 제한하고 시(市)에서 더 많은 가스를 사용토록 강요하고 파이프 매설에 세금면제를 제외하고 있다는 면을 들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들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그는 말한다.

실제로 베이징당국은 에너지공급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는 주 라이벌인 대만과의 조인트벤처까지 고려하고 있다. 중국의 관료들은 CNOOC로 하여금 대만해협 바닥으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기 위하여 대만의 중국석유유한공사와 회담을 추진토록 촉구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와 같은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는 오늘날 보다 더 유연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의 석유에 대한 갈증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비즈니스위크」,

2001.12.24.)

